

[1~3] (가)는 발표 준비를 위한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학생 1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우리 수학 동아리 모임에서 내가 발표할 차례인 거 알지? 친구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이면 좋겠는데, 주제를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

학생 2: 요즘 내가 재미를 느끼는 분야는 없어?

학생 1: 내가 통계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 맞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에 통계 자료에 숨겨진 오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 볼까?

학생 2: 네가 잘 아는 분야니까 괜찮겠네. 친구들도 관심 있어 할 것 같고.

학생 1: 그래,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니 흥미도 느낄 테고.

학생 2: 제재는 통계 자료로 정한 것 같고, 주제는 뭘로 할 거야?

학생 1: 통계 자료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니까 신뢰도를 확인하자는 내용을 다루는 게 좋겠어. 이 주제는 앞으로 친구들이 통계 자료를 접할 때 도움이 될 거야.

(나)

조사 결과를 정리한 통계 자료를 그대로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통계 자료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정보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신뢰도에 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거 여론 조사를 할 때, 유권자들을 전부 찾아가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묻는 건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흔히 취하는 방법이 표본 조사입니다. 가령 유권자가 10,000명이라면, 그중 100명만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뒤 전체 유권자의 선택을 예측하는 것이죠.

이때 만약 100명 중 55명이 A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한다면, 표본에서는 55%가 A 후보를 선택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유권자 10,000명 중 55%가 A 후보를 선택했고 신뢰도는 95%라고 말한다면, 이는 추정된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표본 조사를 100번 반복했을 때 A 후보의 지지율이 55%로 나타날 경우의 수가 95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 자료를 읽을 때는 이 신뢰도를 준거로 자료를 믿을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99%면 아주 믿을 만하고, 95%면 믿을 만하다고 여깁니다. 간혹 신뢰도가 95%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통계 자료의 신뢰도를 의미 없이 보아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념인지 알고 나니 신뢰도를 꼭 확인하고 나서 통계 자료를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신뢰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 청자의 흥미를 고려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고려하고 있다.
- ③ 매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떠올리고 있다.
- ④ 조언을 바탕으로 선정된 제재를 변경하고 있다.
- ⑤ 예상 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다.

2. (나)에 반영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ㄱ. 핵심 개념을 정의한 후 가정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 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한다.
- ㄷ. 화자 자신이 겪었던 변화를 제시하며 청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 ㄹ. 핵심 개념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점검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은 (나)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나)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청자 1: 통계 자료는 확정적 사실이 아닌 개연성 있는 정보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뢰도를 확인한 뒤 통계 자료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어. 발표를 듣고 나니 앞으로 통계 자료를 볼 때 반드시 신뢰도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 청자 2: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시청률 조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이 95명으로 나타났다면 이 조사의 신뢰도는 95%라고 보면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봐야겠어.
- 청자 3: 어느 여론 조사를 소개한 신문 기사에서 후보별 지지도만 소개할 뿐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전에는 통계 자료는 무조건 신뢰했는데 앞으로는 발표자의 말대로 통계 자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어.

- ① 청자 1은 발표의 핵심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요약해 보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에서 설명한 핵심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적용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에서 알게 된 개념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3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의 변화를 보이고 있군.
- ⑤ 청자 2와 청자 3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려 하고 있군.

[4~5] 다음은 인터뷰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진로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라는 교수님의 강연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 오늘은 교수님께 지역학에 관한 정보를 얻어 저희 학교 교지에 특집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교수: (웃으면서) 고등학생이 지역학에 관심을 가져 주니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학이란 어떠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수: 지역학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학생: ㉡ 그럼 지역학은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학생: 연구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네요. 한국학도 지역학의 한 영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 (표를 보여 주며) 지역학의 영역을 체계화한 표입니다.

학생: (표를 살펴보며) 한국학이라는 지역학 안에 서울학, 영남학, 호남학, 제주학 등의 지역학이 있네요?

교수: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의 지역학은 15개인데,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지역학 연구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이 좋을까요?

교수: (고개를 저으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 해당 지역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연구자로 적합하겠지요.

학생: 지역학의 전망은 어떤가요?

교수: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에서 지역학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라는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

교수: ㉣ 쉽게 말해,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시각입니다.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이 과제인 미래 사회에서 지역학은 각광 받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사를 썼으면 좋겠네요.

학생: ㉤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교수님 말씀처럼 지역학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써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터뷰의 목적을 밝히면서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 ② ㉡: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5. 인터뷰를 마친 후 학생이 인터뷰 계획에 따른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기 점검표

인터뷰 계획	실행 여부		
	예	아니오	
지역학의 전망에 대해 물어본다.	✓		.....①
지역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		.....②
지역학과 관련하여 특집 기사에 넣을 만한 시각 자료를 요청한다.		✓	.....③
지역학과 한국학의 관계 속에서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확인한다.		✓	.....④
지역학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지역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해 질문한다.	✓		.....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교지에 실을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환경 보전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고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 첫째 문단은 ‘종이컵 재활용 운동’의 가치, 둘째 문단은 종이컵 재활용과 관련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문제점과 그 원인, 셋째 문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근거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나) 학생의 초고

우리 학교는 ‘종이컵 재활용 운동’을 하고 있다. 종이컵은 천연 펄프로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한 자료도 있다. 종이컵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는 것은 자원의 ㉠ 지출을 줄이고 환경 보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

㉡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환경 보전반’ 활동으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다. 학생들이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거나 오물이 묻은 채로 분리수거함에 마구 버리기 때문이다. ㉢ 최근에는 건강과 친환경 생활을 고려한 종이컵이 개발되고 있다. 오염이 심한 종이컵은 세척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환경 보전반 친구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환경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 종이컵 재활용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사용한 종이컵은 분리수거함에 넣고, 오물이 묻은 종이컵은 간단히 세척하여 배출하면 된다. 학생 각자가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6.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이 가졌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에서, 작문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작성한 것에서, 작문이 자료의 인용 출처를 밝히는 윤리적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③ ‘종이컵 재활용 운동’의 가치를 말한 것에서, 작문이 공동체의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회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들에게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고한 것에서, 작문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 지향적 활동임을 알 수 있다.
- ⑤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자 하는 것에서, 작문이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7. (나)를 작성한 후 <보기>를 접했다고 할 때, <보기>의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구에서는 사용한 종이컵을 주민 자치 센터로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종이컵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 □□ 신문 -

㉡ 우리나라의 종이컵 사용량은 연간 7만 215톤으로 약 135억 개에 달한다. 종이컵 사용으로 해마다 약 5,400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종이컵 사용량이 연간 10억 개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종이컵 재활용 비율은 사용량의 14%에도 못 미치고 있다.

- 환경 보고서 -

㉢ “학교에서 종이컵 재활용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별로 관심은 없어요. 일일이 종이컵을 씻어서 버리는 일도 너무 귀찮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귀찮아해요.”

- 우리 학교 학생 인터뷰 -

- ① ㉠을 활용하여 ‘종이컵 재활용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첫째 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② ㉡을 활용하여 종이컵 사용량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각장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첫째 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③ ㉢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의 ‘종이컵 재활용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실천 의식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을 둘째 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④ ㉠과 ㉢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고 개인용 컵을 가지고 다닐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셋째 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⑤ ㉡과 ㉢을 활용하여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학생들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셋째 문단에 추가해야겠어.

8.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낭비를’로 고치는 게 좋겠어.
- ② ㉡: 문단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래서’로 고치는 게 좋겠어.
- ③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게 좋겠어.
- ④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게 좋겠어.
- ⑤ ㉤: 뒤의 단어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게 좋겠어.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학교에서 개최된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여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을 듣고,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학생의 글]

지난 주 학교에서 개최된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였다. 캠프에는 리더십 게임, 강연, 모둠 토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나는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의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의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자에게 집중되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의 개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된다는 것이 강연의 핵심 내용이었다.

강연을 듣고 나니 리더십에 대한 나의 생각이 편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만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학기에 동아리 회장으로서 축제 준비를 할 때, 나는 리더로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나에게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나 강연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 그때 나는 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했던 것 같다. 부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더 알찬 행사를 구성하고, 더 즐거운 분위기에서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9. <보기> 중 [학생의 글]에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강연의 인상 깊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ㄴ. 강연의 내용을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ㄷ. 강연에서 깨달은 바를 글쓴이의 경험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ㄹ. 강연 내용을 토대로 그릇된 통념이 널리 확산된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학생의 글]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강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할 것.
  - 앞으로의 다짐을 밝힐 것.
  - 직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할 것.

- ① 전에 읽은 책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절을 본 기억이 난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고 포용하는 태도를 길러 좋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야겠다.
- ② 여러 사람의 개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꺼리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자신을 낮추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닐까?
- ③ 사람에게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까닭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일 것이다. 내 말만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일은 없어야겠다.
- ④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은 상호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하기 쉬우므로 앞으로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11. <보기>와 같은 활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활동 과제]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다음 사례가 ㉠~㉣ 중, 어떤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자.

웃하고[오타고]                      홀이불[혼니불]

웃하고[오타고]                      홀이불[혼니불]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12.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가리킵니다.

용언	어간	어근
춥다 (단일어)	춥-	춥-
치춥다 (파생어)	치춥-	춥-
쌔춥다 (합성어)	쌔춥-	쌔, 춥-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용언이 단일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세 단어의 어간과 어근을 분석해 볼까요?

용언	어간	어근
줄이다	줄이-	㉠
힘들다	힘들-	㉡
오가다	오가-	㉢

- |   | ㉠   | ㉡     | ㉢      |
|---|-----|-------|--------|
| ① | 줄이- | 힘들-   | 오가-    |
| ② | 줄이- | 힘들-   | 오-, 가- |
| ③ | 줄-  | 힘들-   | 오가-    |
| ④ | 줄-  | 힘, 들- | 오-, 가- |
| ⑤ | 줄-  | 힘, 들- | 오가-    |

13. <보기>의 담화 상황으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영화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고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 그런데 ㉠ 그것이 사실이야?

B: 아니, 내가 영화에게 민수 말이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 자기는 분명히 말하고 가져갔다고 그러더라.

A: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됐나 보다. ㉢ 아무나 좋으니 일단 나서서 민수와 영화의 오해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나저나 어제 저녁에 교실에 있었던 애들이 ㉣ 누구였는지 기억나?

B: 나도 ㉤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 ㉠은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을 간단히 표현하려고 사용한 대명사이다.
- ㉡은 B가 앞서 언급한 '영화'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 ㉢은 화자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 ㉣은 화자가 지시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사용한 대명사이다.
- ㉤은 A가 앞서 언급한 '교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14. 다음은 '달다'에 관한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달다<sup>1</sup>** ㉠ 【...에 ...을】 [달아, 다니, 다오]

㉠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  
예 배에 돛을 달다.

㉡ 이름이나 제목 따위를 정하여 붙이다.  
예 작품에 제목을 달다.

**달다<sup>2</sup>** ㉢ [달아, 다니, 다오]

㉢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예 아이스크림이 달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  
예 나른한 식곤에 잠이 달았다.

- '달다<sup>1</sup>'과 '달다<sup>2</sup>'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느군.
- '달다<sup>1</sup>'과 '달다<sup>2</sup>'는 모두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되면 '다니'로 활용되느군.
- '달다<sup>1</sup>' ㉠의 용례로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달다<sup>2</sup>' ㉢의 속담은 '달다'와 '쓰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달다<sup>1</sup>' ㉡은 '달다<sup>2</sup>' ㉣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더 많군.

15.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진다.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능동문	피동문
㉠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	두 학생이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	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
㉢	낙엽이 바람에 난다.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
㉣	해당 사례 없음.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

- ㉠의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과 ㉡은 모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 ㉡과 ㉢은 모두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은 자동사를 피동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은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는 약 1,600 km/h 속도로 자전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어떤 기차가 1,600 km/h 속도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리는데, 이 상황을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일까? 우주에서 바라보면 기차는 지구 자전과 빠르기는 같되 방향은 반대여서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갈릴레이는 속도는 상대적인 물리량일 뿐이므로 모든 운동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준이 없는 속도는 물리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뉴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 갈릴레이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며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물었다. 운동하는 물체는 실제로 운동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실제로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 뉴턴은 두 상태를 구별할 기준점이 필요했다. 즉 무엇에 대하여 정지해 있고,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인지를 탐구했다. 그래서 뉴턴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공간을 상정하고 이를 절대 공간이라 명명했다.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로서, 운동하는 물체가 특정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지을 수 있는 절대적 배경이다.

[가] 뉴턴의 관점을 따른다면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제자리를 돌 때, 양팔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절대 공간에 대하여 가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장비를 동원하여 얼음판 전체를 회전시키고 우리는 그 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면 얼음판과 우리 사이의 상대 운동은 이전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지만 우리는 절대 공간에 대하여 정지해 있으므로 양팔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뉴턴의 공간은 비유하자면 마치 모눈종이처럼 고정된 좌표계를 갖고 있어서 모든 운동은 그 좌표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절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절대 공간 개념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있었다. 뉴턴은 공간이 물리적 실체라고 했지만 19세기에 ㉠ 마흐는 공간은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운동은 상대적으로 측정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공간이란 한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서술하는 용어이지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우주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 그곳에서 자신의 몸이 회전하고 있다면 팔과 다리에는 아무런 느낌도 전달되지 않고 몸이 회전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았다. 즉 이 경우 회전 상태와 비회전 상태가 물리적으로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마흐에 따르면 회전하는 몸에 느껴지는 힘은 주변에 널려 있는 물체의 분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별이 단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서 회전한다면 아주 미미한 힘을 느끼고, 별이 지금보다 많은 우주에서 회전한다면 현재보다 큰 힘을 느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운동은 궁극적으로 우주 내에서 물질의 분포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공간을 운동의 궁극적 기준으로 삼았던 뉴턴과 달리 마흐는 우주에 분포해 있는 물체들을 운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마흐의 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공간과 우주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16.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갈릴레이에게 운동은 기준에 따라 달리 서술될 수 있었다.
- ② 지구 위의 사람들은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
- ③ 뉴턴의 공간 개념은 마흐에게 계승되어 더 발전된 모습이 되었다.
- ④ 뉴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 갈릴레이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했다.
- ⑤ 마흐의 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었다.

17. [가]에 나타난 ‘뉴턴’의 생각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동은 어느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다.
- ② 운동을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절대 공간이다.
- ③ 속도의 변화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 ④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한 물체는 각각 절대 공간에 대하여 운동하고 정지해 있다.
- ⑤ 절대 공간은 실제로 증명된 것이 아니지만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18. ㉠의 관점에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밧줄의 양 끝에 매여 있는 두 개의 돌멩이가 우주 공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 밧줄은 팽팽하게 당겨질까?

- ① 어떤 조건에서도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회전 운동은 어떤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지각되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조건에서도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 내의 모든 천체들은 균질하게 분포하여 변치 않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조건에서도 밧줄이 느슨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텅 빈 우주 안에서라면 회전 운동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특정 조건에서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돌멩이들의 위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 ⑤ 특정 조건에서는 밧줄이 느슨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 안의 물질들의 분포 상태에 따라 운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슬기와 재석은 200 km/h 속도로 주행하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 사이 내내 슬기는 책을 읽었고 재석은 슬기 옆자리에 앉아 야구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는 놀이를 계속 반복했다.

- ① 갈릴레이는 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슬기의 책의 이동 속도는 0 km/h라고 말할 것이다.
- ② 뉴턴은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석과 슬기의 이동 거리는 같다고 말할 것이다.
- ③ 뉴턴은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슬기의 책은 운동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 ④ 마흐는 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슬기와 재석의 위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 ⑤ 마흐는 야구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석이가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스프링클러는 물을 약제로 사용하여 화재 초기에 화세\*를 제어할 목적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고정식 소화 설비로, 수원과 연결된 배관, 가압 송수 장치, 제어 장치, 헤드로 구성되어 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정상 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던 헤드의 감열체가 온도를 감지하고 헤드로부터 이탈하면서 연소물과 그 주변에 물이 분사되어 화세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스프링클러가 화세를 제어하는 원리는 물의 냉각 작용을 통해 연소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온도를 발화점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어떤 물질 1 kg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드는 열량을 비열이라 하고 액체가 기화하여 기체로 될 때 흡수하는 열을 증발 잠열이라고 하는데, 물은 끓는점이 100℃, 비열이 1 kcal/kg·℃, 증발 잠열이 539 kcal/kg로서 다른 어느 물질보다도 큰 열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의 물 1 kg이 완전히 증기로 변할 때, 물은 온도를 끓는점까지 올리기 위한 80 kcal의 열량에 이를 증기로 변하게 하기 위한 539 kcal의 열량을 더하여 총 619 kcal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화재가 일어나 분당 6,000 kcal의 열량이 방출되고 있어 물의 냉각 작용만을 통해 화세를 제어하고자 한다면, 20℃의 물을 분당 10 kg 내보내면 물이 증발하면서 총 6,190 kcal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연소물로부터 방출되는 열량을 흡수하여 화세를 제어하고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스프링클러가 화세를 제어하는 또 다른 원리는 물의 증기 팽창을 통해 공기 중 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키거나 연소물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20℃ 물의 비부피\*는 0.001 m³/kg이고 100℃ 증기의 비부피는 1.673 m³/kg로서 물이 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약 1,600 배 이상 팽창된다. 이러한 증기 팽창은 공기 중 산소의 농도와 가연물이 되는 가연성 증기의 농도를 희석시켜 연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준다. 증기 팽창에 의한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의 증발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 입자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 방울의 입자를 더욱 작은 미립자로 분무할 경우에는 매우 얇

은 막의 형성을 뜻하는 에멀전(emulsion) 효과가 발생한다. 유류 화재와 같이 물이 소화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세한 물 입자를 이용한 분무는, 물이 유류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형성된 얇은 막은 산소를 차단하여 질식소화의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스프링클러가 화재 초기에 화세를 제어하게 되면, 연소의 진행으로 인해 쌓인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 공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데 이르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실내 거주자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특성은 야간이나 유동 인원이 적은 공간에서도 화재 감지 및 경보, 소화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화세: 불이 타오르는 기세.

\* 비부피: 단위 질량의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

2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 입자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클수록 증발 효율이 높다.
- ② 25℃의 물 1 kg이 증기로 변하면 총 614 kcal의 열량을 흡수할 수 있다.
- ③ 연소물에서 방출되는 열량보다 물이 흡수하는 열량이 더 크면 화세를 제어할 수 있다.
- ④ 스프링클러가 화재 초기에 화세를 제어하면 실내 거주자의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 ⑤ 스프링클러를 통해 방출되는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연소물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이 적어진다.

21.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휴대가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해 작은 화재에 주로 사용하는 ㉡ 분말 소화기는 용기에 탄산수소나트륨의 건조 분말을 넣고 따로 방사용의 이산화탄소 용기를 부착한 것이다. 화재 발생 시 사용자가 손잡이를 강하게 누르면 탄산수소나트륨 분말이 이산화탄소의 압력에 의해 방출되고 화열에 의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산소 차단과 냉각 효과가 발생하여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 ① ㉠이 감열체가 열을 감지하고 헤드로부터 자동으로 이탈하는 것과 달리, ㉡는 사용자의 조작 과정이 요구된다.
- ②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성질을 이용한다.
- ③ ㉠, ㉡ 모두 약제를 내보내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이용한다.
- ④ ㉠, ㉡ 모두 실내외의 화세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설치된다.
- ⑤ ㉠, ㉡ 모두 화재에 대비하여 휴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연소가 계속 유지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연소의 3요소라 하는데 ㉠ 가연물, ㉡ 산소, ㉢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그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연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미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 조건을 약화시켜 연소를 억제할 수 있고, 조건 중 일부를 없애거나 조건 간의 결합을 차단시킴으로써 연소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가. 스프링클러의 물에 의해 ㉢ 조건을 약화시키는 냉각 작용이 일어난다면 연소가 억제될 수 있겠군.
- 나. 스프링클러의 물에 의해 ㉠ 조건과 ㉡ 조건을 약화시키는 증기 팽창이 일어난다면 연소가 억제될 수 있겠군.
- 다. 스프링클러의 물에 의해 ㉡ 조건을 제거하는 냉각 작용이 일어난다면 연소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군.
- 라. 스프링클러의 물에 의해 ㉠ 조건과 ㉡ 조건의 결합을 차단하는 에멀전 효과가 일어난다면 연소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군.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조세 수입을 보전하고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이다. 이 중 국고채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이다. 만기일에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국고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된다. 발행 주체인 정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를 선호하며, 매입 주체인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여 높은 금리를 선호한다. 국고채의 금리는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데, 경쟁 입찰은 금리 결정 방법에 따라 크게 ‘복수금리결정방식’과 ‘단일금리결정방식’으로 나뉜다.

※ 발행 예정액 : 800억 원

투자자	제시한 금리와 금액	결정 방식	
		복수금리	단일금리
A	4.99% 200억 원	4.99%	모두 5.05%
B	5.00% 200억 원	5.00%	
C	5.01% 200억 원	5.01%	
D	5.03% 100억 원	5.03%	
E	5.05% 100억 원	5.05%	미낙찰
F	5.07% 100억 원	미낙찰	

복수금리결정방식은 각각의 투자자가 금리와 금액을 제시하면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낙찰된 금액의 합계가 발행 예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부터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때 국고채의 금리는 각각의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로 결정된다. 표와 같이 발행 예정액이 800억 원인 경쟁 입찰이 있다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A부터 E까지 제시한 금액 합계가 800억 원이므로 이들이 순차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때 국고채의 금리는 A에게는 4.99%, B에게는 5.00%, ..., E에게는 5.05%로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된다.

한편, 단일금리결정방식은 각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리를 최저부터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이들이 제시한 금액이 발행 예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복수금리결정방식과 같다. 하지만 발행되는 국고채의 금리는 낙찰자들이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단일하게 결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표와 같이 낙찰자는 A~E로 결정되지만 국고채의 금리는 A~E 모두에게 5.05%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금리결정방식은 복수금리결정방식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단일금리결정방식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복수금리결정방식과 단일금리결정방식을 혼합한 ‘차등금리결정방식’을 도입하기도 한다. ㉠ 차등금리결정방식이란 단일금리결정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낙찰자들을 결정하지만, 낙찰자들이 제시한 금리들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한다는 점이 다르다. 각 그룹의 간격은 0.02%p ~ 0.03%p 정도로 정부가 결정하며, 이때 국고채의 금리는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와 관계없이 정부가 각각의 그룹에 설정한 최고 금리로 결정된다. 이는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를 그룹별로 차등화함으로써 적정 금리로 입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낸다.



23.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 ②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경쟁 입찰 방식을 고찰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경쟁 입찰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 ④ 통념에 반하는 사례를 들어 경쟁 입찰 방식의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 ⑤ 경쟁 입찰 방식에 관한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24.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고채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이다.
- ②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는 국고채의 금리가 투자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 ③ 단일금리결정방식에서는 투자자가 자신이 제시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국고채를 낙찰 받을 수 있다.
- ④ 복수금리결정방식과 단일금리결정방식 모두 투자자들이 각자 원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 ⑤ 단일금리결정방식에 비해 복수금리결정방식으로 국고채를 발행할 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2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나라는 국채 시장의 발전이 미흡했던 과거에 정부가 국고채를 금융 기관에 강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발행했다. 국채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취해 오다 국고채의 발행을 촉진하고자 단일금리결정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는 차등금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①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 발생한 정부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계획이다.
- ② 복수금리결정방식보다 높은 금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려는 시도이다.
- ③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 발생한 투자자들의 이자 수익을 환수하려는 방안이다.
- ④ 단일금리결정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리를 차별화하려는 조치이다.
- ⑤ 단일금리결정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다.

26. ㉠을 <보기>에 적용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ㄱ. 발행 예정액: 700억 원

ㄴ. 그룹화 간격: 0.03%p

ㄷ. 입찰 결과:

투자자	제시한 금리와 금액
㉠	1.98% 100억 원
㉡	2.00% 100억 원
㉢	2.02% 200억 원
㉣	2.05% 100억 원
㉤	2.06% 200억 원
㉥	2.07% 200억 원

ㄹ. 그룹화 결과: 2.06 ~ 2.04%, 2.03 ~ 2.01%, 2.00 ~ 1.98%  
(단, 입찰 단위는 0.01%p 단위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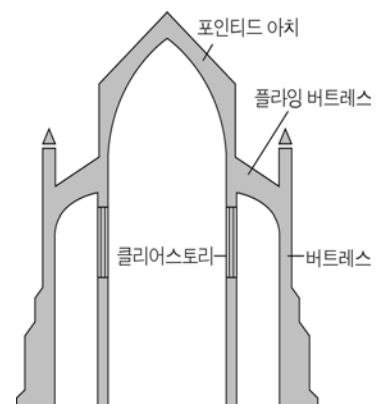
- ① ㉠이 속한 그룹은 ㉠이 제시한 금리로 낙찰 받는다.
- ② ㉡와 ㉢은 같은 금리로 낙찰 받는다.
- ③ ㉢은 2.03%의 금리로 낙찰 받는다.
- ④ ㉣과 ㉤ 모두 2.05%의 금리로 낙찰 받는다.
- ⑤ ㉥은 ㉤과 다른 그룹으로 낙찰 받는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시대에는 종교 건축 분야에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당시 농촌 지역에 활발히 세워지던 수도원의 성당에 적용되었다. 로마의 영향을 받아 둥근 아치 형태였던 천장은 석재로 만들어져 매우 무거웠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 벽도 두껍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벽과 천장의 무게로 인해 창을 크게 만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채광이 부족해 대체로 어두웠다. 이러한 어두움은 성당의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이러한 로마네스크 양식이 변형을 거쳐 발전한 것이 고딕 양식이다. 당시의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를 ㉠ 입증하고자 노력했는데, 고딕 양식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신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로 탄생하였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이 신의 ㉡ 현현이라고 생각한 당대의 사람들은 ㉢ 고딕 양식을 통해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찬 성당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런데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창 면적이 넓어야 했다. 창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거운 천장과 벽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창문을 크게 만드는 대신, 성당의 벽을 바깥에서 떠받치기 위해 ‘버트레스’와 ‘플라잉 버트레스’를 만들어 높아진 건물을 지탱하게 했다. 또한 고딕 양식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사용되던 둥근 아치형의 천장을 뾰족하게 솟아오른 형태로 ㉣ 고안해 냈다. 이를 ‘포인티드 아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인해 로마네스크 성당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천장이 높아지자 벽 옆면에 길고 큰 창인 ‘클리어스



고딕 성당의 단면도

토리'를 뚫어 성당 안으로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창에는 다채로운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시공했는데, 빛을 굴절 투과시켜 신비감을 ㉔ 부각하였다. 이후 고딕 성당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지향하게 된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지의 수도원으로 순례객들이 모여들던 때에 탄생했다. 그들은 웅장하게 지어진 성당을 순례하며 신의 권위와 장엄함을 느꼈다. 한편 고딕 양식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고딕 시대의 이주민들은,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며 하늘 높이 수직으로 솟아올라 빛으로 가득해진 도시의 성당에서 신의 존재를 체험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㉕ 위무 받고자 했다. 성당 순례를 통해 신을 느끼며 현실에서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던 로마네스크 시대의 사람들처럼 고딕 시대의 사람들도 신에게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에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중세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을 읽어낼 수 있다.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딕 시대 사람들은 성당에서 신의 존재를 체험하고자 했다.
- ② 로마네스크 양식의 둥근 아치형 천장은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 ③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나타났다.
- ④ 고딕 성당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 지어져 혼란기의 이주민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 ⑤ 성당 내부에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자 한 노력이 고딕 성당의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28.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버트레스'는 성당의 벽을 떠받치기 위한 것이다.
- ② '클리어스토리'는 천장이 높아지며 설치된 것이다.
- ③ '클리어스토리'에 '스테인드글라스'가 시공되었다.
- ④ '포인티드 아치'는 둥근 아치를 뾰족하게 만든 것이다.
- ⑤ '플라잉 버트레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생겨났다.

29. 윗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끊임없이 수직을 지향하다 비례 법칙을 어기게 된 고딕 양식에 반기를 든 르네상스 양식은 엄격한 비례미를 추구했다. 그런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자 건축에서 등장한 사조가 매너리즘이다. 매너리즘은 비례 법칙으로는 혼란한 사회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보고, 르네상스 양식을 거부하며 일탈과 변형을 추구한 것이다. 그래서 매너리즘 건축은 기둥을 애매한 간격으로 세웠고, 아래층보다 위층의 창을 더 웅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건물의 장식은 크기, 형태 등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형상을 나타냈다.

- ① 고딕 성당은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소망이, 매너리즘 건축물은 당시의 혼란한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게 된 것이군.
- ② 고딕 성당이 로마네스크 양식을 변형한 데 비해, 매너리즘 건축물은 르네상스 양식에 대한 모방을 통해 새로운 양식을 추구한 것이군.
- ③ 고딕 성당에 비해 로마네스크 성당은 건물의 높이를, 매너리즘 건축물은 위층 창의 높이를 높여 웅장함을 나타내려 한 것이군.
- ④ 매너리즘 건축물은 로마네스크 성당과는 달리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기둥을 애매한 간격으로 세운 것이군.
- ⑤ 매너리즘 건축물과 고딕 성당 모두 건물의 크기와 형태를 규칙적 형상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군.

30. ㉕ ~ ㉗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㉕: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 ② ㉖: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냄.
- ③ ㉗: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 ④ ㉘: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⑤ ㉙: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랠.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 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  
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  
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곶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  
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  
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  
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스의 잠’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  
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내 : 동안.

\* 울력 : 힘을 실어 줌.

[A]

[B]

31.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한다.
- ③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⑤ 도치의 구문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 ② [A]와 [B]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 ③ [A]와 [B] 모두 상승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전환한다.
- ④ [A]에서는 타인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환기되고, [B]에서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B]에서는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는 ‘흰 바람벽’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외풍을 막는 허술한 벽으로서의 초라한 이미지를 보이기도 하고, 쓸쓸함을 자아내는가 하면, 고결함을 상징하는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한계 상황이나, 상념의 투사가 가능한 스크린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정서와 처지를 드러내며 삶과 가치관을 집약한다.

- ① ‘쓸쓸한 것’, ‘외로운 생각’과 같은 구절을 통해 ‘흰 바람벽’을 마주하고 있는 화자의 고독이 직접 노출되고 있군.
- ② ‘흰 바람벽’이 자아내는 누추한 느낌은 ‘십오촉 전등’이나 ‘낡은 무명셔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심화되고 있군.
- ③ ‘흰 바람벽’은 ‘좁다란 방’과 의미적 대립을 이루어 화자가 봉착한 삶의 한계를 상징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지치운 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로 비유되고 있군.
- ④ ‘흰 바람벽’의 백색이 지닌 깨끗한 이미지는 자신을 ‘높’게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세계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가난하’지만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흰 바람벽’은 화자의 상념이 투사되는 공간으로, 화자는 ‘초생달’, ‘프랑스의 잠’ 등 열거한 자연물과 인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자의 아우인 명현왕이 장풍운에게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청하지만, 장풍운은 이 부인과 이미 결혼하였기에 이를 거절한다. 천자의 권유로 마지못해 명현왕의 딸 유씨와 혼인한 장풍운은 토번이 침략하자 출정을 위해 경성을 떠난다.

유씨가 좌승상 장풍운이 대원수가 되어 출정한 틈을 타 이 부인을 모해하려 하여 한 계교를 생각해 내고 시비 난향을 불러 조용히 물었다.

“너는 나의 수족과 같으니, 나의 계교를 맡아서 해내려느냐?”

“소비가 어찌 부인의 명을 불속인들 피하리까?”

유씨가 매우 기뻐하며 물었다.

“바깥문 출입 단속을 누가 책임지고 맡아 하느냐?”

“수문장은 강공철인데, 운향의 지아비이나이다.”

유씨가 계교를 이르고 당부했다.

“이리이리하되 삼가 누설치 말라!”

난향이 웃고 이날부터 금은을 나누어 주며 운향과 더불어 사귀기 심히 은근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두 사람의 정이 동기간 같았고, 행동거지와 목소리까지 서로 방불하여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유씨가 기뻐하여 계교 행하기를 재촉하니, 난향이 응낙하고 운향의 침소에 가서 담소하다가 물었다.

“요사이 강 무사는 어디 갔는가?”

“응당 해야 할 일이 많기로 오지 못하더니, 오늘은 마침 틈을 내어 올 것이네.”

난향이 이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다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유씨에게 알렸다. 유씨가 난향에게 다시금 당부하여 ‘이리이리하라’하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이 부인에게 전갈했다.

“승상이 출정하신 후 궁중이 쓸쓸하고 고요하니, 시비 운향을 보내 주시면 아름다운 말씀도 듣고 노닐며 경치를 구경하고자 하나이다.”

이 부인은 정숙하고 기품 있는 여자인지라 유씨의 간계를 모르고 즉시 운향을 보내 주었다. 유씨는 흔쾌히 정성껏 운향을 대접하고 머무르게 하고는 돌려보내지 아니하니, 운향은 공철이 온다고 했으므로 민망했다. 유씨는 짐짓 운향을 아니 보내고 난향에게 눈짓을 하니, 난향이 즉시 운향 침소에 가서 살림 도구 및 이부자리와 베개 등을 다 옮기고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공철이 오는데, 난향이 운향인 체하고 더디 몸을 원망하며 물었다.

“위왕 어르신께서 몸이 불편하시므로 부인과 두 남자가 다 내당에 머무시나이다. 그래서 정당이 비었는지라 나는 정당에 거처하겠으니, 당신도 나를 따라 정당에 가서 머뭇이 어 떠하겠소?”

공철이 응낙하지 않고 도리어 물었다.

“비록 그러하나, 어찌 내당에 들어간단 말ियो?”

“밤이 깊고 사람이 없으니 의심 마소서.”

공철의 소매를 이끌어 바로 이 부인 침소에 들어갔다. 이때 밤이 깊었으니, 시비가 다 자고 ㉠ 정당이 고요했다. 공철이 의심하지 않고 난향의 음성이 운향과 서로 비슷하므로 속은 바가 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 어찌 비참하고 끔찍하지 아니하랴.

난향이 공철을 인도하여 안방에 딸린 작은 방에 앉히고 말했다.

“여기 누워 있으면 내 불을 켜오리다.”

난향이 이러하고는 곧장 유씨 부인 침소로 돌아와 운향을 위로하며 말했다.

“부인을 모시고 평안히 지냈는가?”

유씨가 이어서 말했다.

“밤이 깊고 이 부인께서 외로이 계시니, 내 몸소 가서 위로하리라.”

그러고는 등축을 밝히고 정당에 이르렀다. 공철이 불빛을 보고 놀라 몸을 피하여 따로 결붙은 방에 숨었다. 유씨가 방문을 열고 침실에 두른 휘장을 걷어 올리며 말했다.

“부인은 잠을 들어 계시나이까?”

그리하며 유씨가 협방 문을 밀치니, 공철이 놀라 내닫다가 유씨와 마주쳤으나 밀치고 달아났다. 이에 유씨가 거짓으로 얼굴빛을 달리하며 물러섰다. 이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결에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찌 이리 떠들썩한가?”

유씨가 버럭 성을 내며 꾸짖었다.

“이 음탕하고 방탕한 계집아! 너는 좌승상의 정실부인이요, 직첩이 정렬에 있거늘, 어찌 이런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나?”

시비를 시켜 서둘러 이 부인을 결박 짓게 했다.

이 부인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이 지경에 처하니 놀랍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나, 일이 되어 가는 형세가 어찌 된 것인지 알지 못하여 심신을 가다듬지 못했다.

이즈음에 공철이 도망하여 중문으로 나왔다. 그러나 문을 지키는 군사가 이왕 난향과 약속이 있었는지라 칼을 들어서 공철을 베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랴.

**[중략 부분의 줄거리]** 천자의 명령으로 이 부인은 감옥에 갇히고 장풍운은 금산사 부처의 계시에 이어 그간의 사정을 알리는 왕 부인의 편지를 본다. 이 부인이 처형당하는 날, 장풍운이 경성으로 돌아온다.

좌승상이 말을 달려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헤치고 형을 집행하는 감형관에게 가서 전후사연을 이르며 “참하는 시각을 늦추라.” 하고는, 바로 입궐하여 벌줄 것을 청했다. 천자가 크게 놀라셨지만 먼저 먼 길 갔다 온 것을 위로하시고, 다음으로 옥사를 말씀하셨다. 좌승상이 싸움에 나가 이겨 공을 세운 경위를 아뢰고는, 옥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금일 옥사는 저의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오니 스스로 맡아서 처리하게 해 주소서.”

천자가 이를 윤허하셨다. 좌승상이 본가로 돌아와 양 부인을 뵈 후, 형구를 차려 놓고 모든 시비를 죄주려 하니, 엄한 형벌 아래서 쥐 같은 무리들이 어찌 죄를 감출 수가 있으랴. 불하일장, 곧 한 대도 때리기 전에 이미 난향 등이 잘못을 낱낱이 순순히 자백했다. 좌승상이 표를 올려 옥사를 뒤집고, 유씨를 그 수레에서 사형에 처하고, 난향 등을 능지처참한 후, 이씨를 구호했다. 천자가 몹시 노하여 명현왕의 녹봉을 거두셨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

34.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풍운’은 토변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 ② ‘천자’는 옥사와 관련된 ‘장풍운’의 요청을 허락했다.
- ③ ‘난향’은 ‘운향’과 가까워지기 위해 재물을 이용했다.
- ④ ‘유씨’는 자신의 처소에 온 ‘운향’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 ⑤ ‘공철’은 ‘난향’의 외모를 보고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

35.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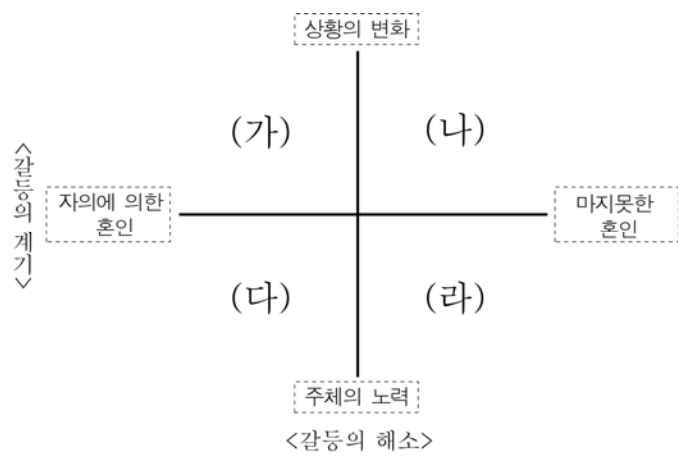
3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향’이 계교를 꾸미고 실행하는 공간이다.
- ② ‘천자’가 신분적 위계를 강조하는 공간이다.
- ③ ‘이 부인’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 ④ ‘공철’이 불의한 무리에게 이용당하는 공간이다.
- ⑤ ‘장풍운’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입증하는 공간이다.

3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 고전 소설에는 주인공의 득첩이나 제2 부인과의 혼인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혼인에는 자의에 의한 혼인과 마지못한 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득첩이나 제2 부인과의 혼인으로 갈등이 발생하는데, 주인공의 액운이 다하거나 상황이 저절로 변해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와 주인공이 주체가 되어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장풍운전」을 이러한 구조에 입각하여 살펴볼까요?



학생 : 이 작품은 ㉠ ‘장풍운’의 두 아내인 ‘이 부인’과 ‘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소설입니다. ‘장풍운’은 ‘이 부인’을 생각하여 제2 부인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 ‘천자’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유씨’와 혼인하므로 ‘마지못한 혼인’이 갈등의 계기가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 ‘장풍운’이 급히 경성으로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하므로 ‘주체의 노력’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 ‘이 부인’이 누명을 벗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여 고난을 극복하므로 ‘이 부인’의 측면에서 보아도 ‘주체의 노력’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 이 작품은 ‘마지못한 혼인’에 의해 갈등이 시작되고 ‘주체의 노력’에 의해 갈등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라)에 해당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복거\*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하리라

<제1수>

일곡(一曲)은 어디메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에 내 걷히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제2수>

삼곡(三曲)은 어디메오 취병\*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하는 적에  
반송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이 없어라

<제4수>

오곡(五曲)은 어디메오 은병(隱屏)이 보기 좋다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함\*도 가이없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 하리라

<제6수>

육곡(六曲)은 어디메오 조협\*에 물이 넓다  
㉠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느고  
황혼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를 하노라

<제7수>

팔곡(八曲)은 어디메오 금탄\*에 달이 밝다  
옥진금휘\*로 수삼곡(數三曲)을 연주하니  
고조(古調)를 알 이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

<제9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 주모복거: 풀을 베어 내고 집을 지어 살 곳을 정함.
- \* 무이: 주자가 정사를 짓고 학문에 정진했다고 하는 곳.
- \* 평무: 잡초가 무성한 벌판.
- \* 녹준: 좋은 술동이.
- \* 취병: 지명. 푸른 빛 병풍 같은 절벽.
- \* 하상기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 \* 소쇄함: 맑고 깨끗함.
- \* 조협: 지명. 낚시하기 좋은 골짜기.
- \* 대월귀: 달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감.
- \* 금탄: 지명. 악기를 연주하는 시내.
- \* 옥진금휘: 좋은 거문고.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격정적 어조를 통해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주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③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율곡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은병정사를 짓고 후학 양성에 힘쓸 때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연시조를 이루고 있는 각 수들은 하루의 시간적 흐름과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을 중심으로 작가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와 자연 속에서의 운치 있는 풍류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학문 정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사용된 소재와 내용을 통해 볼 때, 각 수의 초장에 제시된 지명은 작가가 그곳에서 발견한 특성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제1수>와 <제6수>의 ‘학주자’, ‘강학’ 등을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학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제2수>에서 하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펼쳐지는 풍광을 자신을 찾아온 ‘벗’과 함께 감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군.
- ③ <제4수>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취병’의 여름 경치를 노래함으로써 계절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군.
- ④ <제4수>와 <제7수>에 제시된 ‘녹수’, ‘고기’ 등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취병’과 ‘조협’이라는 지명은 그곳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제9수>는 ‘금탄’에서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운치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40.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청약림(靑蕨笠) 녹사의(綠蓑衣)를 왼 어깨에 둘러 메고  
세우(細雨) 강구(江口)로 낙대 들고 내려 가니  
㉡ 백구(白鷗)도 나를 반겨서 오락가락 하더라

- ① ㉠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으며, ㉡는 대상과 화자를 대조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과 ㉡는 모두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과 ㉡는 모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과 ㉡는 모두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 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서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 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걱찢걱 쇠소리를 낼 듯한 철사 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었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단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뺏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뺏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찢은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복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암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킁킁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 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켠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쭉부쟁이와 엉경귀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반합 뚜껑에서 술이 쭈쭈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노인과 함께 산을 내려와 헤어지면서 ‘나’는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어머니는 훌쩍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저고리 셔를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외아들 앞에선 좀체 눈물을 비치지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앓아누웠을 때라도 입술을 양당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쭈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 왔었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감잡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런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 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밀려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 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정게 식어 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4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내적 독백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빈번한 장면의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생사 불명된 존재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주인공은 어린 시절 상처를 입게 된다. 이때부터 ‘망각’과 ‘어둠’으로 표상되는 아버지는 ‘기억’과 ‘빛’으로 표상되는 어머니와 대척점에 놓인다. 그런데 군복무 중 우연히 발견한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고 두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쟁의 폭력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①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철사 줄’의 ‘끈질김과 냉혹성’은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보여 주는군.
- ② 주인공이 유해를 수습하다가 ‘현기증’을 느낀 것은 불현듯 망각했던 아버지를 ‘곱고 자상한 눈매’, ‘나직한 음성’으로 기억해 냈기 때문이겠군.
- ③ 주인공에게 ‘은빛으로 반짝’이는 어머니의 표상은 ‘마루 밑 그 캄캄한 어둠 속’의 아버지의 표상과 대비되는 것이겠군.
- ④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대해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라고 연민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아버지 역시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은 것이겠군.
- ⑤ 어머니가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에 울고 있다는 주인공의 생각은 어머니를 전쟁의 희생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군.

43. ‘노인’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애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제의적 의식과 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 ③ 전통 윤리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 ④ 전쟁의 원인에 대해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⑤ 가족 간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44.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남편의 귀환을 소망하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에서 ‘나’의 마음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는 세파에 시달려 온 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굳은 믿음이 한때 흔들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에서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는 오랜 세월 어머니가 외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45. 윗글의 장면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오는 것은?

- ① 밥상에서 미역국이 식어 가는 장면
- ② 군인들이 봉분을 만들고 음복을 하는 장면
- ③ 노인이 철사 줄 묶음을 허공에 던지는 장면
- ④ 어머니가 내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우는 장면
- ⑤ 아버지가 밤에 산길을 따라 도망치듯 떠나는 장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